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최근 동향

Mabel Rice / 메이블 라이스

(캔자스대학 언어치료학과 교수)

배 소 영 (캔자스대학 언어치료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동들의 의사 소통 문제에 매우 예민하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언어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세 살 난 석이의 어머니는 석이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다. 특히 석이가 말을 잘 하지 않고, 또 말을 하는 것 같을 때에는 혼자서 중얼중얼대면서 어머니의 말에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더욱 고민이다.

다섯 살 난 원이의 어머니는 원이가 말을 더듬고 다른 사람들이 원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다. 원이 어머니는 원이가 언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른들이 그냥 늦되는 거니까 기다리자고 하여, 원이의 말이 저절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원이 어머니는 원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데 대해서 종종 죄의식을 느낀다.

여섯 살 난 철이의 어머니는 철이가 발달 지체 아동이고 특수 아동을 위한 유아원에 다니는 것이 속상하다. 특히 철이가 옆집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일반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지만 지난 해에 일반 유치원에서 겪은 서러운 경험 때문에 철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일곱 살 난 연이의 어머니는 연이가 이제 곧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지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신체 움직임이 남 같지 않고 말

을 천천히 하는 것 말고는 집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지만 연이의 친구들이 벌써 한글 읽기나 기본 셈하기를 다 마치고 국민학교에 들어간다는데 연이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연이 어머니는 자폐 아동인 연이의 사춘 준이를 볼 때마다 집안에 유전적인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치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낫듯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말-언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말-언어 문제에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사 소통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일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본 글의 다음 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정상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경향이 제시될 것이다. 나아가 정상 언어 발달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최근 경향을 다루고, 특히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이 최근 연구 경향의 한 본보기로 소개될 것이다. 본 글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으로 끝맺어질 것이다.

II. 언어 습득 이론과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새로운 방향

1. 언어 습득 이론과 아동기 언어 장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 큰 문제 없이 모국어를 습득한다. Chomsky(1986)는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언어 습득 기제를 타고 나므로 모국어에 노출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이들은 왜 “말이 참 무거워.”라고 말해야 할 것을 “말이가 참 컸어.”라고 하는 것일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5년(5년×365일×24시)이라는 긴 시간을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소요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Chomsky가 제시한 언어 습득 기제만으로는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이가 참 컸어.”라고 하는 문장의 경우, 우리 말에서는 받침이 있는 낱말(예를 들어 ‘말’)이 주어 자리에 올 경우 ‘이’라는 주격 조사를 쓰지,

‘가’라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가’라는 조사를 쓴다. 즉, “윤숙이가 노래를 참 잘하네.”라는 문장은 “윤숙이 노래를 참 잘 하네.”라는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이처럼 간단하지 않은 문법 현상의 습득 과정들이 아동 언어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모국어의 문법 체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이론은 없다. 이제 아동의 언어 및 언어 교육 연구 문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최근의 두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Pinker(1984, 1989)는 ‘의미론적 언어 습득 이론’에서 언어 습득 기제를 타고난 어린이가 모국어에 있는 의미론적인 현상을 축으로 해서 모국어의 문법 체계를 습득해 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언어 환경적인 영향의 중요성과 함께 아동의 심리언어학적인 언어 습득 과정을 강조하는 MacWhinney(1987)의 ‘경쟁 모델(competition model)’과는 대조적이다.

Pinker의 이론은 모국어에 있는 의미론적 요소와 규칙에 의거한 자동적인 언어 습득을 강조한다. “I laugh you.”라는 문장은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다. 이는 “I make you laugh.”라는 문법적인 문장을 목표로 한 경우에 영어를 배우는 학령 전기의 아동들이 산출하는 창조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한 예이다. 마치 우리말을 배우는 아동이 “말이가 참 컸어.”라고 하듯이. Pinker는 왜 아이가 ‘laugh’라는 동사를 ‘make X laugh.’라는 사동 구문과 혼동하는지를 영어 동사구에 있는 의미론적인 요소를 통해 설명한다. ‘laugh’는 동사 ‘break’와 그 문법적인 쓰임이 다르다. 즉, “I broke the vase,” “The vase broke”라는 두 문장에서는 ‘break’가 마음대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지만 ‘laugh’는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두 동사가 속해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Pinker는 이렇게 아동이 “I laugh you.”라는 창조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극복해서 “I make you laugh.”라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아동이 영어 동사에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들에 예민하도록 태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말의 창조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예로 든 “말이가 참 컸어.”에서 ‘컸어’라는 과거 시제가 잘못 쓰인 형용사를 고려해 볼 때 우리말에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이 아동의 언어 습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MacWhinney의 경쟁 모델은 아동 자신의 언어 습득 기제보다 아동이 언어를 습득해 가는 ‘언어 환경’을 강조한다. 또한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빈도와 단순 연상에 의거한 언어 습득을 강조한다. 즉, 얼마나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바른 모델을 듣느냐에 따라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

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I laugh you.”라는 문장은 “I make you laugh.”라는 문법적인 문장과는 경쟁에서 실수로 선택된 것이다. 아동이 바른 문장을 더 많은 빈도로 듣고 나면 아동의 실수는 사라지게 된다. MacWhinney의 모델은 아동이 모국어의 개별 낱말을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다. 우리말에 있는 ‘크다’라는 낱말은 많이 들을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왜 ‘무거워’라는 목표 낱말이 ‘켰어’라는 낱말로 대체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켰어’라는 낱말은 ‘무거워’라는 낱말과 대체될 수 있는 수많은 낱말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독 ‘켰어’라는 의미와 구조를 선호한다는 것은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Pinker의 이론과 MacWhinney의 이론이 대립되는 측면을 가지긴 하지만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동기 언어 장애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은 아동기 언어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이 정상 발달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Curtiss, Katz, and Tallal, 1992),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상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이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 의미있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러 발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언어 발달에서만 지체를 보이는 특정 언어 장애 아동들도 정상 언어 발달 단계와 비슷한 순서를 거치지만 그 습득 속도가 느리고 특정 문법 구조를 습득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onard, 1988).

언어 습득 이론이 아동의 언어 장애 연구에 기여하듯, 언어 장애 연구 또한 상보적으로 언어 습득 이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의 언어 장애 연구들을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새로운 방향들

의사 소통을 위해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이 관련된다. 첫째, 생물학적인 바탕, 둘째, 아동이 배워야 할 모국어, 그리고 셋째, 아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이 그것이다. 아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에는 언어학적인 요인 이외에도 인지, 사회적 발달이 또한 관련되므로 의사

소통 장애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다. 각 개별 아동의 의사 소통 문제에는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므로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여러 방향을 의사 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자. 사람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생물학적인, 또는 유전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동물은 사람처럼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어 고유의 현상으로 생물학적 차원을 강조하는 언어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이루어진 한 특정 언어 장애의 가계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가계에 여러 명의 언어 장애자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Gopnik, 1991; Crago and Gopnik, 1992), 이 가계의 언어 장애자들은 문법 형태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 언어 장애자들이 그 규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법 형태소의 한 예로 영어의 과거 시제 '-ed'를 보고하면서, Crago and Gopnik는 한 유전자가 과거 시제에 책임이 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Tallal et al. 그리고 Tomblin의 연구들도 가계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유전자와 언어 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언어 장애에 대한 유전학적인 연구가 아직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몇몇 특정한 가계 연구 결과가 모든 언어 장애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Whitehurst et al.은 가계 연구가 언어 발달에 대한 예언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즉, 가계 연구는 상관적인 연구이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법이 아니므로 그 결과의 해석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Crago의 연구에서 부각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문법 규칙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애자들이 '보상적 기제(compensatory mechanism)'를 통해 의사 소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언어 장애자들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언어 행동 현상' 그 자체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과도 관련된다.

두 번째로 모국어에 대한 연구들은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하여 각 아동이 배워야 할 모국어의 개별적 특성과 여러 언어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이 의사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와 함께 언어 장애 진단이나 치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Pinker의 언어 습득 이론은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어 장애 아동들이 각 언어에서 고유한 문법 형태소나 복잡한 문장 구조의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Pinker의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MacWhinney의 이론은 언어 장애 아동들이 개별 낱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별 낱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에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는 언어 환경과 빈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적절한 힌트에 대한 경제적 한계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고, 어떠한 요소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 규칙 습득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약화된다.

세 번째로 아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 언어 치료에서 강조되는 화용론적인 방향(Gallagher, 1991)과 자연적인 접근 방법은 아동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에서 행동주의적인 전통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ey(1986)의 의사 소통 유형에 의거한 언어 치료적 접근은 언어 치료에서 화용론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Fey는 아동의 반응성과 자기 표현이라는 두 차원이 아동의 의사 소통 유형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다고 설명하면서 각 유형에 따른 의사 소통적인 치료 접근 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 언어 장애 아동뿐 아니라 행동주의적인 치료 방법이 강조되어 온 정신 지체 아동에게도 강조, 적용되고 있다.

자연적인 치료 접근 방법(Rice, 1991; Rice and Schiefelbusch, 1989; Rice and Wilcox, in press)은 화용론적인 접근 방법과 함께 새로 습득한 언어 행동을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행동주의적인 접근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언어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즉, 치료실 내의 일 대 일 언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유아원 내의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들이 함께 하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의사 소통 동기가 유발되고, 아동이 주도하도록 강조하는 언어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언어 행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강조되어 반복적이고 친숙한 여러 상황들이 새로 배운 언어 행동을 사용하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언어 환경을 구조화한다. Vigotsky가 아동은 사회적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언급했듯이, 이 접근 방법도 언어가 쓰이는 사회적 측면을 다른 발달적 영역만큼 강조하고 있다. 또한 Nelson(1989)이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빈도에 의거한 언어 교수보다는 의미있는 언어 습득 순간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직은 이 치료접근

법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부족한 것이 한 약점이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치료 접근 방법이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법의 약점을 보완함에는 틀림이 없다.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각 아동이 속한 문화적 배경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Patton and Westby, 1992). 아동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배워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워야 할 경우 제 1 언어인 모국어에 다소 무시되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최근에 강조되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 부여와 대조된다. 언어 교육에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언어 장애 연구 방향으로서는 영아, 유아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정상 아동 언어 연구들이 만 1, 2세 아동의 언어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언어 장애 연구들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법 제도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 미국에서 법 99~457이 1986년에 공포된 이후 유아들을 위한 언어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유아들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가족 특히 부모를 언어 진단 및 치료에 핵심적으로 관련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언어 진단과 언어 치료에 있어서 개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진단 결과와 검사 점수를 도래 아동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표준화된 검사로 이루어진 기존의 진단 및 평가 방법에서 더 나아가 언어 발달 지수를 각 아동의 성숙도와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역동적인 진단 및 평가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한 아동에게 적용된 치료 방법이 다른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어 치료에 있어서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법 형태소를 교육하는 방법에서 특정 언어 장애를 갖는 어떤 아동에게는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 적합하지만(Connell, 1987), 다른 아동의 경우에는 똑같은 문법 형태소를 교육한다고 해도 유아원 내에서의 자연적인 접근 방법(Rice and Wilcox, in press)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치료 방법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단 과정에서 언어 치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캔자스대학 언어 습득 유아원

이제 미국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한 언어 습득 유아원을 예로 하여 최근의 언어 장애 연구 동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캔자스대학 내의 언어 습득 유아원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 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언어 습득 이론과 최근의 언어 장애 연구 경향들에서 비롯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언어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능력 및 동기와 함께 자연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유아원의 구성원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이 유아원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언어 습득 유아원

이 유아원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각 반에 약 15 명 정도의 학령 전기 아동들(만 2세에서 만 5세)이 언어 치료사 및 유아원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 15명의 아동 중 1/3은 언어 장애 아동이고, 1/3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하는 정상 아동들이며 나머지 1/3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정상 아동들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들은 언어 장애 아동들이 의사 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유아원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학령 전기의 특정 언어 장애 아동에게 언어 치료를 제공하고, 둘째, 대학원 학생들을 언어 치료사로 교육하며, 셋째, 관련 연구들을 진행한다. 이 유아원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동 언어학 박사이며 언어 치료사인 지도 선생님이 있고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맡은 분이 있으며 각 반에는 보조 선생님이 학생 언어 치료사들과 함께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을 위해 통역자가 특별 친구로서 참가한다.

이 유아원의 전체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그리고 사회성 발달 영역을 포괄하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의사 소통 능력의 발달이 특별히 강조되도록 짜여져 있다. 하루의 일과는 자유 시간, 일일 계획 시간, 연극놀이 시간, 이야기 시간, 나누기 시간, 바깥놀이 시간, 간식 시간, 그룹 시간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새로운 의사 소통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친숙한 상황들

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새로 배운 의사 소통 행동을 자연스러운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각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연극놀이 시간이 구성된다. 언어 치료사들은 아동들이 각각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선택된 단기 및 장기 언어 치료 목표(기본적으로는 아동의 동기와 주도에 따라 선택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Johnston, 1985). 이 때 타인이 아동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가 되며, 더불어 의사 소통적인 언어 행동이 강조된다. 언어 치료사는 각 개별 아동에게 적합한 언어 모델을 찾아 내어 아동의 반응을 모델에 따라 즉각적으로 확장 혹은 수정 확장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언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성은 무엇보다도 다른 아동들이 언어 장애 아동에게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동들이 옆집 아이들과 놀면서부터 또는 유아원에 가면서부터 부쩍 말이 늘었다는 예들을 많이 접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밥투정을 할 때 옆집 아이를 불러오거나 보기로 드는 예가 많다. 이러한 예들은 아이가 다른 아이의 행동에 예민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각자의 언어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정상 아동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과 언어 장애 아동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의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은 독특한 언어 습득 전략을 언어 장애 아동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로 인해 언어 장애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아동들의 언어 습득 정도가 표준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록되고, 특히 언어 장애 아동의 경우, 이해 및 표현 언어의 발달 정도가 말소리, 낱말, 문법 형태소 및 문장 구조 등으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 의해 자세히 평가된다. 나아가 자발적인 발화의 수집 및 컴퓨터 처리가 표준화된 검사들을 보완하여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장, 단기 목표는 개별 언어 치료사에 의해 평가되며 지도 선생님이 다시 보완 평가한다. 심리 진단가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정도를 학기마다 평가하여 언어 치료사들이 장, 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보조 자료로 제공한다. 참고적으로 언어 장애 아동에 대한 가계 자료가 기록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자료로 첨가된다.

2. 관련 연구들

이제 이 유아원과 관련된 연구들을 최근의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자연적인 치료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언어 장애 아동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정상으로 복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할 수 있다. 이 유아원에 등록했던 언어 장애 아동들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해 볼 때 놀라운 발전을 보여 자연적인 치료 접근법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수(追隨) 연구들은 아동들이 표준화된 언어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복귀했다 할지라도 종종 학업적 발달, 사회성 발달 혹은 의사 소통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ice, Sell and Hadley, 1991). 특히 언어 장애 아동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관점이 이러한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언어 현상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서 언어 장애 아동의 낱말 및 문법 발달에서의 문제들이 이 유아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언어 장애 아동들은 새로운 낱말을 지각하고 저장해서 의미 있게 인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즉, 언어 장애 아동들은 재빨리 새로운 낱말을 배우는 데 (QUIL: Quick Incidental Learning)에 어려움이 있다. 캔자스대학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언어 장애 아동의 어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ice, Oetting, Bode and Pae, in preparation). 특히 어휘 발달 과정이나 언어 발달 수준이 비슷한 또래 나이의 정상 아동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정상 언어 발달과 언어 장애의 상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대학은 영어와 그 구조면에서 대조적인 한국어와의 초언어적인 연구(Rice, Pae, and Oetting, in preparation)를 통해 영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범할 수 있는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보완함으로써 언어 보편적인 현상을 언어 개별적 현상과 연결해서 분석하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영어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유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방향은 우리 나라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무조건적인 조기 영어 교육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유아원에서 누적 기록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동이 모국어를 어느 정도 완전히 습득하였을 때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모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습득해야 하는 아동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나이와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아

동의 의사 소통 유형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해 가는 아동들이 보이는 영어 습득 전략들은 언어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IV. 논 의

이와 같은 자연적인 그리고 화용적인 언어 치료 접근법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언어 보편적 및 언어 개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한국적인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의 경우, 정상 아동이 영어를 습득하는 데 관한 연구와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제 어떤 점들이 한국적 적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아동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습득하는 데서 나타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 언어 개별적 현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말에서는 아동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잘 했어.”라는 동사구를 쓰는 것이 보통이나 영어에서는 “good job.”이라는 명사구를 쓴다. 이처럼 어떤 언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사나 동사의 쓰임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아동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방향이 독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에서는 아동의 언어 평가에 다양한 표준화 검사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말을 기초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반증한다. 현재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나라의 언어 치료사들은 비표준화된 평가 방법에 의존하여 개별적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준거에 의거한 평가 방법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함께 쓰일 때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초언어적 행동을 연구할 때 표준화된 언어 검사는 중요한 비교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언어 장애를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표준화 검사의 개발은 다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셋째, 언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법 제도가 우리 나라

에서도 시급하다. 언어 장애 아동의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정상 아동과의 통합 교육은 종종 정상 아동의 어머니들의 반발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언어 치료사가 새로운 언어 행동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실제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반감된다.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에 등록된 정상 아동들은 언어 장애 아동이나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동을 위해 값진 언어 모델을 제공해 주는 한편, 정상 아동 자신은 자기 모국어를 새롭게 탐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언어에서 주도자가 된다는 경험은 사회성의 발달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미국에서 영아, 유아를 위한 언어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인식이 법 제도와 연결되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언어 장애아를 위한 법 제도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의 첫 부분에 언급한 언어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의 고민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들이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최근 경향들과 관련하여 제시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Special Studies.
- Connell, P. (1987), A comparison of modeling and imitation teaching procedures on language-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0, 105~113.
- Crago, M. and M. Gopnik (1992), From families to phenotype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 of research into the genetic basis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 paper presented at the Bruton Conference: June 19~20, Dallas, Texas.
- Curtiss, S., W. Katz, and P. Tallal (1992), Delay versus deviance in the language acquisition of language-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73~383.
- Fey, M. (1986),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San Diego: College-Hill Press.
- Gallagher, T. (1991), *Pragmatics of Language: Clinical Practice Issues*, San Diego, Calif.: Singular Publishing Group.
- Gopnik, M. (1991), Feature-blindness: a case study, *Language Acquisition*, 1, 139~164.

- Johnston, J. (1985), Fit, focus, and functionality: an essay on early language intervention,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 125~134.
- Leonard, L. (1988), Lexical development and processing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In *Language Perspectives: Acquisition, Retardation, and Intervention*, 2nd ed., ed. by L. Loyd and R. Schiefelbusch, Austin, Texas: Pro-Ed.
- MacWhinney, B. (1987), The competition model, In *Mechanisms of Language Acquisition*, ed. by B. MacWhinne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elson, K. (1989), Strategies for first language teaching, In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ed. by M. Rice and R. Schiefelbusch, Baltimore: Brookes.
- Patton, M. and C. Westby (1992), Ethnography and research: a qualitative view,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2, 1~14.
- Pinker, S. (1984), *Language Learn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Rice, M. (1991),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oward a model of teachability, In *Biologic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Language Development*, ed. by N. Krasnegor, D. Rumbaugh, R. Schiefelbusch, and M. Studdert-Kenned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ice, M. and R. Schiefelbusch (1989), *The Teachability of Language*. Baltimore: Brookes.
- Rice, M., J. Oetting, Bode, and S. Pae (in preparation), Is redundancy the answer?: the effect of frequency of presentation on children's word learning abilities,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ansas.
- Rice, M., S. Pae, and J. Oetting (in preparation), QUIL: what is universal and what is language-specific?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ansas.
- Rice, M., M. Sell, and P. Hadley (1991), Social interactions of speech-language impaired preschool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1299~1307.
- Rice, M. and K. Wilcox (in press), *Classroom-Based Language Acquisition Pre-school: Language Intervention*, Baltimore: Brookes.